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55>

JCCT 2020-2-8

국내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An Integrative Review of Nursing Ethics Education Programs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한달롱*

Dallong Ha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중재 연구 고찰을 통해 향후 간호윤리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통합적 문헌고찰을 적용하였으며, 문제 규명, 문헌 검색, 자료 평가, 자료 분석, 자료 제시의 5단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12편으로 교육 내용은 생명의료윤리, 간호윤리에 대한 것이었고, 대부분이 교과목 수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육 방법은 전통식 강의를 포함하여 사례에 기반한 토론, 토의, 액션러닝, 온라인 학습, 문제기반학습 등이 활용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윤리의식, 윤리적 가치관,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민감성 등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추후 간호윤리 교육은 대학 교과과정 안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간호, 고찰, 교육, 윤리,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nursing ethic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in Korea.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was applied as a research metho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five steps of problem identification, literature search, data evaluation,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Twelve studies were analyzed, and the educational content was about biomedical ethics and nursing ethics, and most of them were through subject classes. Teaching methods included case-based debates, discussions, action learning, online learning, and problem-based learning, including traditional lectures. Through education program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biomedical ethics, ethical values, moral judgment, and moral sensitivity. Progressive and continuous nursing ethics education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is required within the curriculum.

Key words : Education, Ethics, Nursing, Review, Student

1. 서론

인간을 다루는 모든 상황은 윤리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인간과 생명 돌봄이라는 핵심적인 속성을

지닌 간호 업무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1]. 평균수명의 증가, 의료 수준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 다양한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복잡한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전문적으로

*정회원,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접수일: 2019년 12월 19일, 수정완료일: 2020년 01월 03일

게재확정일: 2020년 01월 13일

Received: December 19, 2019 / Revised: January 03, 2020

Accepted: January 13, 2020

*Corresponding Author: dhan@cju.ac.kr

Dep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Korea

서의 간호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윤리적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다[1]. 이에 간호사는 대상자의 권리 존중 및 보호, 옹호자로서의 책임과 전문직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책임이 요구된다[2]. 실제로 임상간호사들은 환자 간호와 인간 권리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이 밖에도 동료 의료진과의 갈등 상황, 대상자 간호에 충분치 않은 인적, 물리적 자원의 배정 등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를 겪고 있다[3-5].

국내 보건의료계에서는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판결,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의료인 개개인의 직업윤리,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기관과 정부 차원의 문제 등-로 인해 윤리적 이슈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심은 의료인 직업윤리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의료법 법제화, 간호사 국가고시 윤리 문제 출제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6]. 이와 함께 2016년 1월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간호계에서도 간호윤리 고유의 활동을 추구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7년 한국간호윤리학회가 창설되는 등 간호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간호윤리 교육을 시행한 후 그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한 연구에서 교육 후 6개월 이후에는 그 효과가 감소했음을 보고한 바[7], 간호사로서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간호대학에서의 체계적인 간호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간호윤리는 간호학생들이 장차 전문직 간호사로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복잡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윤리적 책임을 갖도록 학생을 준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8].

실제로 간호학생들은 임상 실습 중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 손상, 감염 간호 등에 있어서의 치료와 간호 표준 불이행, 임종 준비와 죽음, 의사 및 동료 간호사 등 의료전문직의 태도, 학생 실습 상황, 경제적 상황, 치료 불순응 등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다[2,8]. 이에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 전문직 발전을 위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무에 통합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다양한 형태로 간

호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들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간호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간호윤리의 본질에 대한 정의 미흡, 교육콘텐츠의 부족, 간호윤리 전문가의 부족 등이 간호윤리 교육에서의 제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9], 향후 내실 있는 간호윤리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고찰하여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그 근거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방법인 통합적 고찰(integrative review)을 통해[10,11],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간호윤리 교육이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추후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에 대한 중재 연구들을 통합적 방법으로 고찰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논문의 특징 파악과 분석은 Whittemore와 Knafll[11]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절차인 문제규명, 문헌 검색(literature search), 자료 가(data evaluation), 자료 분석(data analysis), 자료 제시(presentation)의 5단계에 따라 시행하였다. 전 과정은 연구자 1인과 간호학과 교수 1인, 총 2인이 독립적으로 시행하였고,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논의를 통해 결과를 수렴하였다.

1) 문제 규명(problem identification)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기 위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 관련 중재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 관련 중재의 특성 및 효과는 어떠한가?

2) 문헌 검색(literature search)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문헌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12월 이전에 발표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엔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학술교육원(eArticle),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었다. 검색어는 ‘간호대학생(Nursing student)’, ‘간호윤리(nursing ethics)’, ‘생명의료윤리(bioethics)’, ‘교육(education)’, ‘프로그램(program)’, ‘중재(intervention)’였으며, 한글과 영문 모두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특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목과 초록, 키워드에서 검색되도록 필터링하였다.

분석 대상 문헌의 선정기준은 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 간호윤리 관련 중재 프로그램이 기술되어 있는 연구, 3)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원저, 4) 국문 혹은 영문으로 발표된 연구이었다. 검색 결과, 총 88편의 문헌이 1차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중복된 17편이 제외되었고,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주제가 맞지 않거나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73편이 제외되었다. 2차 검토 문헌으로 선정된 19편은 전문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으며, 교육 중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연구 3편, 대상자가 간호학사학위 특별과정 재학 중인 현직 간호사인 연구 2편을 제외하여 총 14편을 선정하였다(그림 1).

3) 자료 평가(data evaluation)

Oxman와 Guyatt의 연구[12]를 참고로 Zangaro와 Soeken[13]가 개발하여 논문에 사용한 연구 질 평가 척도(Study Quality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선정된 문헌의 질을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연구 목적, 연구 대상자, 연구 장소 유형, 자료수집 방법, 응답률, 변수의 정의,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 전체적인 연구의 질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인의 독립적인 문헌 질 평가 결과, 각 문항의 평가 점수 일치율이 86-100%였고, 변수의 정의,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 등이 불충분한 논문 2편을 제외하여 총 12편의 논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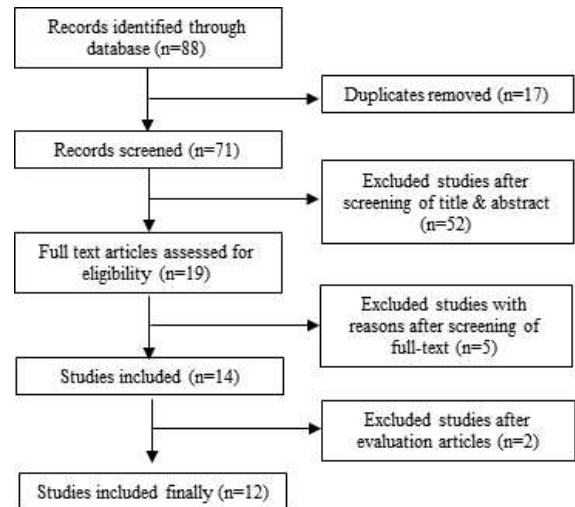


그림 1. 문헌검색 및 선정 과정

Figure 1. Process of searching and selecting literature

4) 자료 분석(data analysis)

문헌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정한 엑셀 양식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선정된 문헌을 통한 연구 동향은 출판 년도, 게재 학술지 유형, 연구설계, 교육 내용, 교육 세팅(교과목/비교과목 프로그램), 교수자, 교육 방법, 실험군 대상자 학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표 1),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과 효과는 연구설계, 세팅, 대상자(실험군) 학년, 표본 수,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기간(주/회기/회기당 시간), 교육 효과의 순으로 연구별로 분석하였다(표 2)

5) 결과 제시(presentation)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문헌을 분석한 내용은 표 1, 표 2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 결과에 상술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의 동향

국내에서 발표된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에 대한 중재 연구 12편을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14-25]. 논문의 출판 년도는 2010년 이전에 1편, 2010년 이후에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16년 이후가 7편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였다. 게재 학술지 유형으로는 간호 관련 학술지가 3편, 의료윤리 관련

학술지가 2편이었으며, 교육 관련 학술지를 포함한 다학제 학술지가 7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설계 유형으로는 유사실험연구 11편, 무작위배정 실험연구가 1편이었다. 유사실험 연구 중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가 9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가 2편이었다(표 2).

생명의료윤리 및 보편적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의사결정, 전문직 윤리 등을 포함한 간호윤리 교육이 6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모두 간호윤리 교과목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다. 생명의료윤리의 개관과 주요 이슈를 다룬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연구가 6편으로 이 중 4편은 생명의료윤리 교과목 시간에, 2편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었다. 모든 연구에서 중재자는 교수였고, 1, 2학년 대상으로 운영된 교육 프로그램이 7편, 3, 4학년 대상은 4편, 나머지 1편은 학년이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 방법으로는 전통적 강의방식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2편, 강의와 기타 학습법이 혼합된 프로그램이 10편이었다.

표 1. 연구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ies

(N=12)			
구분	범주	명	%
출판 년도	2005 - 2010년	1	8.3
	2011 - 2015년	4	33.2
	2016 - 2019년	7	58.3
개재 학술지 유형	간호	3	25.0
	윤리	2	16.7
	기타 다학제	7	58.3
연구 설계	유사실험설계	11	91.7
	무작위 배정 실험설계	1	8.3
교육 내용	간호윤리	6	50.0
	생명의료윤리	6	50.0
교육 세팅	교과목(간호윤리 6, 생명의료윤리 4)	10	83.3
	비교과목	2	16.7
교수자	교수	12	100.0
교육 방법	강의와 기타 학습법 혼합	10	83.3
	강의	2	16.7
실험군 학년	1학년	3	25.0
	2학년	2	16.7
	3학년	2	16.7
	4학년	2	16.7
	1, 2학년 미제시	2 1	16.7 8.3

2. 간호대학생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및 효과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은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기간(주, 횟수, 회기당 시간), 비교 중재, 교육 효과로 분석하였다(표 2). 교육 내용은 크게 간호윤리와 생명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생명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생명의료윤리의 개요와 필요성, 임신중절, 대리모, 배아복제, 인공수정, 자살, 안락사, 뇌사, 연명치료중단, 장기이식, 인간 대상 임상연구, 동물 실험 등의 이슈들이 다루어졌는데, 이 중 1개 연구[25]에서는 서두에 간호사 윤리강령에 대한 강의를 포함시켰다.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에는 간호전문직과 윤리, 보편적 윤리원칙 및 이론, 간호사 윤리강령, 윤리적 의사결정,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이슈, 간호사-대상자 혹은 간호사-동료 관계, 직업윤리와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육 방법으로는 전통적 강의방식으로 이루어진 교육이 2편 있었고, 나머지 10편은 전통적 강의방식과 기타 다른 학습법을 접목한 프로그램이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일부 전통적 방식의 강의를 이루어졌는데, 전체 회기 중 일부 회기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배치한 프로그램이 다수였고, 매 회기 도입부에서 10분 가량 짧은 강의를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전통적 강의방식 이외에 사용된 학습법으로는 토론이 6편으로 가장 많았고, 사례기반 조별 토의, 액션러닝, 문제기반학습법 등이 활용되었다. 토론을 적용한 6편의 연구 중 공리주의, 의무론에 기반한 3단계 수정모형 및 Value, Be, Do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에 기반한 토론이 2편, CEDA(cross-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 아카데미 토론, 가상강의 지원시스템 문답을 이용한 토론 등 각기 다른 방식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의나 토론에 활용된 콘텐츠로 영화를 이용한 연구가 2편이었으며, 나머지 10편의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제시한 사례 혹은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한 사례, 관련 비디오 클립을 활용하였다. 11편의 연구가 오프라인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한 편에서는 가상강의지원시스템 활용하였고, 나머지 1편에서는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교육 기간은 1회성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이 1편이었으며, 나머지 11편은 최소 8주에서 최대 15주로 다양하였다. 1회기 당 시간은 최소 50분에서 최대 180분이었다.

표 2. 간호윤리 교육의 특성과 유의미한 결과
 Table 2.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t outcomes of Education

제1저자 (출판 년도)	연구설계	세팅	표본수 (명)		대상자 학년(학 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기간/회기 /교육시간 (주/회/분)	교육 효과 (유의미한 증가)
			실험 군	대조 군	실험 군	대조 군		실험군	대조 군		
김경아 (2019)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교과 목	32	33	1	1	생명의료윤리	강의, 사례기반 토론	-	14/14/60	생명의료윤리의식
김상돌 (2014)	단일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교과 목	71	-	-	-	간호윤리	강의, 온라인 사례기반학습, 오프라인 문제중심학습	-	15/15/120	윤리적 가치관
김선영 (2014)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	교과 목	47	70	1	1	생명의료윤리	강의, 영화기반 토론	-	14/14/180	생명의료윤리의식
김월주 (2017)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교과 목	31	25	4	4	간호윤리	강의, 액션러닝, 토의	강의	8/8/120	자기표현성
김정숙 (2019)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비교 과목	48	47	1, 2	1, 2	생명의료윤리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강의, 사례 기반 토론	-	1/1/100	연명의료지식 연명의료중단 태도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지식, 태도, 인식
김창희 (2014)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교과 목	41	41	4	4	간호윤리	강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기반 토론(3주)	강의	8/8/120	윤리적 지식 수업 만족도(내용이해, 실무적용 가능성)
유명숙 (2012)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교과 목	65	52	3	3	간호윤리	강의, 토론, 토의, 가상강의지원시 스템 토론, 문제기반학습	-	12/12/120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력(P값)
이미애 (2009)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교과 목	35	26	3	4	간호윤리	강의, 토의(4주)	-	8/8/120	도덕적 판단력(P값, 4단계 점수)
이선희 (2017)	무작위 배정 실험설계	교과 목	39	35	1, 2	1, 2	간호윤리	강의, CEDA 토론 학습(4주)	강의	9/9/-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정계선 (2016)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교과 목	148	169	1	1	생명의료윤리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강의	-	15/15/50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 성향
정창숙 (2019)	단일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비교 과목	21	-	1	-	생명의료윤리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 기반 토론식 영화간호교육	-	-/8/120	도덕적 판단력 윤리적 의사결정 생명의료윤리의식
최영실 (2018)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	교과 목	31	32	2	2	생명의료윤리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강의	-	15/15/50	간호사 윤리강령 활용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10편의 연구 중 대조군에게 중재를 제공한 연구는 3편에 불과하였는데, 이 3편의 연구에서는 대조군에게 전통식 강의방식의 교육을 실험군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제공하였다.

교육 효과 측면에서, 간호윤리 교육 시행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결과변수와 연구의 편수는 각각 생명의료윤리의식 5편, 도덕적 판단력 3편, 도덕적 민감성 2편, 비판적 사고성향 2편 이었으며, 그 밖에 각각 1편에서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기표현

성, 연명의료지식, 연명의료중단 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태도, 인식, 윤리적 지식, 수업 만족도, 간호사 윤리강령 활용 정도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결과변수로 다룬 5편의 연구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윤리적 가치관은 4편의 연구 중 2편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12편의 연구 중 실험 종료 후 시행한 사후평가에 추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 12편을 분석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줄이기 위해 간호대학생 시절부터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함이 강조됨에 따라[26],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전문직의 법적, 윤리적 책임 인식과 이를 실무에 통합하는 역량을 중요한 교육 성과로 간주하고 이러한 역량을 지닌 간호사를 배출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1999년 간호윤리 교육을 독립 과목의 형태로 교육하는 국내 3, 4년제 간호대학은 조사 대상 66개교 중 16개교(25.0%)였으나[27], 약 10년이 경과한 2008년에는 조사한 55개 대학 중 48개교(87.3%)로 증가하는[28]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었다. 2008년 이후로 연구된 자료는 없으나 현재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성과 윤리에 대한 부분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 비율은 더욱 증가했으리라 짐작된다.

간호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연평균 약 11편 가량의 간호윤리 관련 연구들이 출간되고 있으나[6]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간호 분야 연구 수에 비해 절대적인 수는 적은 편이다. 2009년 이후 간호윤리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윤리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전체 연구의 18.4%로 그 비율이 크지 않다[6]. 또한 이 연구들 중 상당수가 대상자로 간호사를 포함하고 있어, 간호대학생만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간호윤리 교육은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교육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대학교육 기간과 간호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6] 간호대학 재학 중 간호학생들이 점차 사고를 확장시키고 학습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생명의료윤리 교육은 주로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윤리 교육은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임상실습을 경험하며 간호 현장과 실무를 이해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여[2,8] 더 폭넓은 윤리적 이해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료윤리 교과목 혹은 간호윤리 한

과목 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임상실습 전인 1, 2학년 때에는 생명존중과 의료자원배분이라는 상호배타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29] 생명의료윤리를 학습하고, 3, 4학년 때에는 생명의료윤리를 바탕으로 간호전문직으로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심화 및 통합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문헌 중 생명의료윤리 교육, 간호윤리 교육이 이루어진 연구가 각각 6편씩이었다. 생명의료윤리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었으나, 간호윤리 교육에는 생명의료윤리, 간호전문직과 윤리, 보편적 윤리원칙 및 이론, 간호사-윤리강령, 딜레마 상황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 간호사-대상자 혹은 간호사-동료 관계, 간호사 직업윤리와 환자의 권리 등 각기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혜영의 연구[9]에서 언급하였듯, 간호윤리 교과목도 독립 과목으로서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부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생명의료윤리의 발달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전통적 윤리 관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윤리관을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6].

또한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전통적 강의 방식 이외에 사례를 접목시킨 토의, 토론, 액션러닝, 문제기반학습, 온라인 학습 등 비교적 비슷한 유형의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상호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윤리의 속성에 비추어볼 때[29] 다양한 학습법 적용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학습자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학습법과 매체를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30].

교육 효과는 프로그램 시행 전후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기표현성, 연명의료지식, 연명의료중단 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 태도, 인식, 윤리적 지식, 수업 만족도, 간호사 윤리강령 활용 정도 등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생명의료윤리의식은 결과변수로 다룬 5편의 연구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윤리적 가치관은 4편의 연구 중 2편에서만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윤리적 가치관의 경우 단시간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재화 되고 일시적 사건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며[31],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설계 면에서 살펴보자면, 12편 연구 중 11편이 유사실험설계로 9편의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 2편은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 무작위 배정 실험연구는 1편이었다. 12편 중 8편의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한 근거가 상당 수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후 무작위 배정 실험연구를 설계함에 바람직하며, 유사실험설계를 적용할 시 대상자 선정 방법과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교란 변수를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연구의 질을 높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문헌만을 선택하여 다른 언어로 발표된 논문들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제한된 검색어와 검색엔진 사용으로 문헌의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분석에 포함된 중재 프로그램의 종류가 상이하어 메타분석을 통한 중재의 효과 크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내 간호윤리 교육 관련 중재 연구를 통합하고 향후 간호윤리 교육의 방향성을 제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교육은 학습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윤리 교육에 대한 개념 및 학습 목표 정립, 그에 따른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넷째, 연구의 엄정성이 보장된 양질의 중재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간호대학 교육에서 받은 간호윤리 교육의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 실험 연구, 학습한 내용이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 [1] A. Van der Arend, "Content and Use of Codes of Ethics in Nursing", *Nursing Ethics*, Vol. 10, pp. 97-108, 2003. <http://dx.doi.org/10.1191/0969733003ne579xx>
- [2] S.S. Han, H.A. Park, S.H. Ahn, C. Miriam, H.S. Oh, and K.U. Kim, "Kore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Ethical Problems and Use of Ethical Decision-Making Mode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1, No. 5, pp. 846-857, 2001.
- [3] H. Shin, S.H. Jeong, M.H. Lee, and Y.R. Yang, "Experiences of Ethical Issues and Needs for Ethics Educat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1, No. 3, pp. 327-339, 2015. <http://dx.doi.org/10.1111/jkana.2015.21.3.327>
- [4] M. Park, "Ethical Issues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Nursing Law*, Vol. 13, No. 3, pp. 68-77, 2009.
- [5] M.H. Park, S.H. Jeon, H.J. Hong, and S.H. Cho, "A Comparison of Ethical Issues in Nursing Practice Across Nursing Units", *Nursing Ethics*, Vol. 21, No. 5, pp. 594-607, 2014.
- [6] S.H. Kim, I.S. Lee, S.Y. Kim, Y.G. Noh, and B.H. Park, "Nursing Ethics Research in Korea from 2009 to 2016",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20, No. 4, pp. 406-424, 2017. <http://dx.doi.org/10.35301/ksme.2017.20.4.406>
- [7] Y.S. Kim, J.W. Park, and K.S. Bang, "A Study on the Persistence of Nursing Ethics Education for Nurses' Eth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7, No. 2, pp. 253-263, 2001.
- [8] Y.G. Noh, and M.S. Jung, "Judgment and Ethical Decision Making and Ethical Dilemmas Experienced in Practice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915-2925, 2013.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915>
- [9] H.Y. Hwang, "The Current Status and Consideration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20, No. 3, pp. 305-316, 2017. <http://dx.doi.org/10.35301/ksme.2017.20.3.305>
- [10] R. Whitemore, and K. Knaf, "Integrative Review: Updated Methodolo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2, No. 5, pp. 546-553, 2005.
- [11] M.A. Kim, S.E. Choi, and J.H. M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Studies on Specific Efficac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4, pp. 259-270, 2019. <http://dx.doi.org/10.1703/JCCT.2019.5.4.25>
- [12] A. D. Oxman, and G. H. Guyatt, "Validation of An index of the Quality of Review Articles", *Journal of*

- Clinical Epidemiology, Vol. 44, PP. 1271 - 1278. 1991.
- [13] G. A. Zangaro, and K. L. Soeken, "A Meta-analysis of Studies of Nurses' Job Satisfactio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 30, No. 4, pp. 445-458, 2007.
- [14] G.A. Kim, and G.S. Jeong, "Effect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on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2, pp. 240-249,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2.240>
- [15] S.D. Kim,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Program on Ethic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5, pp. 567-575, 2014.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5.567>
- [16] S.Y. Kim, "Effect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using Movi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7, pp. 281-290, 2014.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7.281>
- [17] W.J. Kim, and J.H. Park, "The Effects of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on Self-assertiveness and Ethical Valu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24, No. 3, pp. 179-186, 2017. <http://dx.doi.org/10.5953/JMJH.2017.24.3.179>
- [18] J.S. Kim, "Development and Effect of Advance Directive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1, No. 4, pp. 2131-2149, 2019.
- [19] C.H. Kim, and S.Y. Jeong, "The Effects of Debate Classes based on an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on Ethical Knowledge, Class Satisfaction,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405-414, 2014.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405>
- [20] M.S. Yoo, and K.C. Soh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 12, No. 2, pp. 61-76, 2012.
- [21] M.A. Lee, "The Efficacy of Ethics Education on the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12, No. 2, pp. 177-188, 2009.
- [22] S.H. Lee, and S.H. Kim, "Effects of a Debate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thical Value and Moral Judgment in Nursing Ethic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9, No. 4(B), pp. 2263-2276, 2017.
- [23] G.S. Jeong, "The Effect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Freshma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 376-386, 2016.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3.376>
- [24] C.S. Jung, "Effectiveness of Discussion Cinenurducaton for Improving Ethical Decision Making Ability: Based on Value, Be, Do Ethical Decision Making Mod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9, pp. 113-135, 2019. <http://dx.doi.org/10.2251/jlci.2019.19.9.113>
- [25] Y.S. Choi, and G.S. Jeong, "Biomedical Ethics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 The Effect on Awareness and Application of Nursing Code of Ethic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Moral Sensitivit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4, No. 3, pp. 214-224, 2018. <http://dx.doi.org/10.5977/jkasne.2018.24.3.214>
- [26] H.Y. Jung, and K.I. Jung,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Vol. 6, No. 4, pp. 37-48, 2012.
- [27] W.H. Lee, S.S. Han, Y.S. Kim, B.H. Kim, S.A. Chi, Y.R. UM, and S.H. Ahn, "The Current Status and Consideration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in South Korea-Focus on 3, 4 grade-", *Korean J Med Ethics Educ*, Vol. 4, pp. 1-14, 2001
- [28] J.H. Park, Y.S. Kim, and W.O. Kim,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Korean J Med Ethics*, Vol. 12, No. 3, pp. 251-260, 2009.
- [29] P. Borry, P. Scotsmans, and K. Dierickx, "The Birth of the Empirical Turn in Bioethics", *Bioethics*, Vol. 19, pp. 49-47, 2005.
- [30] J.J. Park, "Leadership Development Instruction Program using Flipped Learning Method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7, No. 3, pp. 65-69, 2019. <http://dx.doi.org/10.17703/IJACT.2019.7.3.65>
- [31] M.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382-392, 2015.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이 논문은 2018-2019학년도에 청주대학교 보건의료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heongju University(2018.03.01.~2020.02.29.).